

### 자국 우선주의 해결책

‘자국우선주의’나 ‘종족우월주의’로 상황속에서는 선교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분명해야 한다. 나 중심중의가 아니 현지인 중심주의로 바뀌어야 하고, 선교사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현지인 중심 사역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끄는 자라서의 리더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의 리더로 바뀌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선교의 패턴은 선교사와 현지인들 간의 관계를 주종관계는 물론 아니고, 소위 “4P”에서 말하는 ‘개척자’도 아니고 ‘동역자’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동역자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친구의 모습으로 서의 동역자를 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요한 15:15 에서 말씀하신 것은 친구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없는 관계, 상호 주고받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주종관계(누가 17:7-10)를 말씀하실 때와는 전혀 다른 순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저들을 충분한 교육을 시켰고 지도자가 되어 이제는 종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실을 실행해 나가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 4:3)를 맡은 자가 되어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성숙성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은 현대 선교의 특징은 현지인들과 친분관계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친구관계가 형성되면 이러한 이질적 요소들이 살아지고 하나님의 일군으로의 정체성만 남게 되고 상호 협조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공유하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은 쉬워지게 되어 있다.

현대 사회의 또 장애물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겠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필하게 다가오는 생각의 개념은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에 대한 매력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종교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지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주의의 종식과 더불어 모든 종교는 선교적 사명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전세계로 확대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종교는 자신의 종교적 가치를 깨닫고 자기들의 지리적 영역을 넘어서서 기독교적 서구를 넘어다보기 시작하였다. 아시아의 종교 중에 회교, 불교, 힌두교의 선교 강화는



기독교에 큰 도전이 된다. 세계의 4대 종교에 아시아에서 창시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종교 잠재력을 다원주의적 잠재력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실상은 소위 기독교 문화라고 불리는 서구 문화가 교육계를 통하여 앞을 다투어 종교다원주의를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기독교 대학이라고 불리는 영국, 그리고 미국의 소위 '아이비 리그'(Ivy League) 대학들, 즉 미 동부의 명문대학들은

하나같이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모두 세속화되거나 종교다원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현대 사회에 절대 진리에 대한 현대인들, 특별한 젊은 세대의 거부감은 선교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엄청난 장벽으로 놓여있어 복음의 소통을 위한 선교사의 고민거리이다.

현대의 종교다원주의가 발흥하고 있는 이유를 "종교가 국가의 정체성이나 사회 통합의 수단이 되고 사회 개선을 위한 정치에 너무 참여하면 자연히 종교의 사회화 현상을 초래한다. 지금 세계 종교는 초자연의 문제나 구원 등의 영적 문제보다 현세의 문제에 집착하여 사회 참여로 관심을 전환하고 있다. 종교가 정치화 하는 까닭은 또한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예수님과 관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삶이 변화하고 개인의 삶이 변화하면 사회가 변화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회복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 그리고 한 인간의 자유권을 부여하는 진리를 깨닫는 기독교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의 삶의 질은 살만 한 곳으로 변했고, 저들의 기독교의 인간 가치와 존엄을 기치로 한 정치 지도력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 놓았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 졌다는 것이 불행이다. 타 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태도가 포용이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타협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세의 문제인 물질주의로 흘러가면서 저들의 숭배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결국은 종교다원주의는 세속주의로 변화하게 되면서 종교의 사회화 현상은 현대 사회의 실용주의가 낳은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의 선교리더십은 어떻게 행사해야 할 것인가이다. 그것은 더욱 헌신된 모습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와 순간마다의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즉 삶과 모델을 통한 주님을 믿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섬김을 통해서 세상과의 차별화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